

"1982. 10. 13" 1982. 10. 13

청년은 역사의 주인

박 영 숙 집사

오늘의 한국사회에 있어서 여성과 청년이 공통으로 가지는 문제는 다 같이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여성은 그렇게 삶을 마칠 수도 있지만, 청년은 남성일 경우 성년이라는 과정에 들어서면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회 안에서의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평신도라는 이름아래 피선교자의 자리에 머물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빼앗기고 제약당하고 있다. 청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한가지로 제약투성이 속에서 주어진 것은 책임과 의무 밖에는 없다. 그래서 청년과 여성이 자기주장을 하면 “아직 자기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또는 “여자가 감히 그렇다고 하고,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다 큰 것이”, “여자이니까 할 수 없군” 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해 버린다. 권리 주장에는 아직 미성년이나 미완성 인간으로 취급하고 책임에 있어서는 성인과 완전인의 댓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청년과 여성의 설 자리는 오로지 순종하고 봉사하며 피교육자와 피선교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덕이 있다고 하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드린다. 바꾸어 말하면 청년과 여성이 그들도 귀와 입이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할 때 거부반응이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나는 사람으로서의 순을 잘라버리고 만다. 이러한 현상은 소외된 집단이 결속하여 힘을 가지게 되면 더욱 심해진다. 사회나 교회의 기득권자가 청년과 여성에게 관용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한해서이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즉 남녀 노소, 장애자와 정상인, 그리고 유능자와 무능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부여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모든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선교하신다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평신도들이 하나의 파견된 교회 또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선자리에서 다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청년과 여성의 평신도로서의 자각은 아주 중요하며, 그것은 세상의 불의에 의분을 느끼며 이웃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팔과 다리를 내어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한국 교회 청년과 여성을 같은 자리에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미 청년들은 그들이 가지는 특성으로 하나님 앞과 역사 앞과 민족 앞에서 사회와 교회갱신을 위한 자기의 사명을 다 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거기에 해당하는 값도 치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기득권자는 물론 소외자로서의 연대의식을 마땅히 가져야 할 여성들이 청년들이 치루고 있는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점이다. 자식의 고통에 대한 어머니의 연민으로서였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청년과 여성은 한국 교회의 새 세기를 맞이함에 있어 함께 해낼 수 있는 공동 과제가 있다. 그것은 교회일치문제이다. 이것은 평신도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데에 우리는 관심을 모아야 한다.

한국 교회가 교단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아픔을 나누며,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 처해 있는 인간세계 전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서 개교회, 개교단에 대한 보호본능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평신도에게서 그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이다. 단지 남은 문제는 오랜동안의 억눌림, 소외 상태 또는 주체성상실의 상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자기비하의 통속적인 잘못에서 평신도들은 우선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역사의 주인은 오늘의 역사를 위해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 그중에서도 특히 그늘에서 굶은 일을 말없이 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